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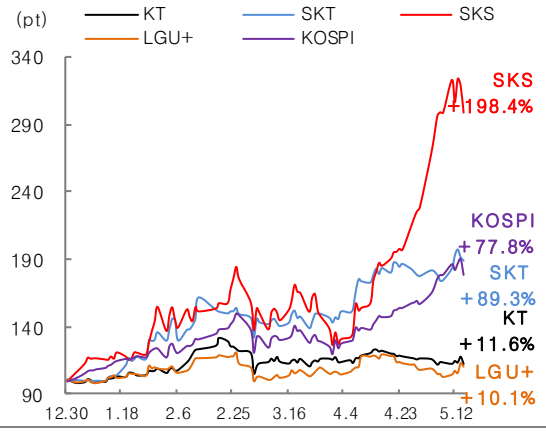
기업	25/12/30	04/30	05/08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93,500	101,300	▲47,800	▲89.3%	▲7,800	▲8.3%	3,320	3.3	
SK스퀘어 (402340)	368,000	1,098,000	1,098,000	▲730,000	▲198.4%					
KT (030200)	52,600	59,300	58,700	▲6,100	▲11.6%	▼600	▼1.0%	2,500	4.3	
LGU+ (032640)	14,720	15,050	16,210	▲1,490	▲10.1%	▲1,160	▲7.7%	700	4.3	
KOSPI	4,214.2	7,498.0	7,493.2	▲3,279.0	▲77.8%	▼4.8	▼0.1%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실적은 잘 마무리 했습니다.**
- 통신 주간 +4.7%, KOSPI -0.1%. YTD 통신 +39.4%, 지수 +77.8%. 기존 주도주 쏠림 속에 외인 이탈이 나타나면서 지난 주까지 2주간 주가 부진했으나, 이번 주 외인 매수세 유입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
- 4Q19 이후 배당 재투자 수익률 SKT +268%, KT +210%, LGU+ +55% vs. KOSPI +237%. 장기 배당 재투자 기준 통신이 아웃퍼폼
- 이번 주 KT를 끝으로 실적 마무리. 3사 모두 예상 수준의 실적. 2Q부터는 해킹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정상적인 실적 전망
- KT는 실적 발표에서 최소 DPS를 1,960원에서 2,400원으로 상향했고, 1Q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별도 OP 1.5조원 달성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초반 강세
- 지수가 8천선에서 저항 받으며 변동성이 다시 커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주주환원 강자인 통신주에 대한 비중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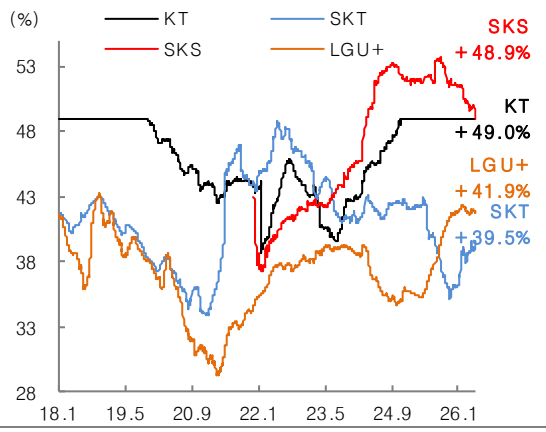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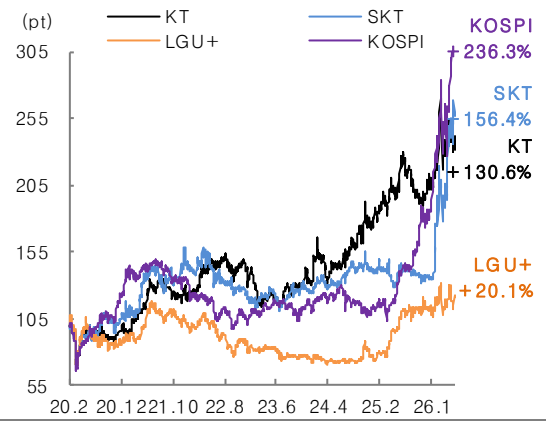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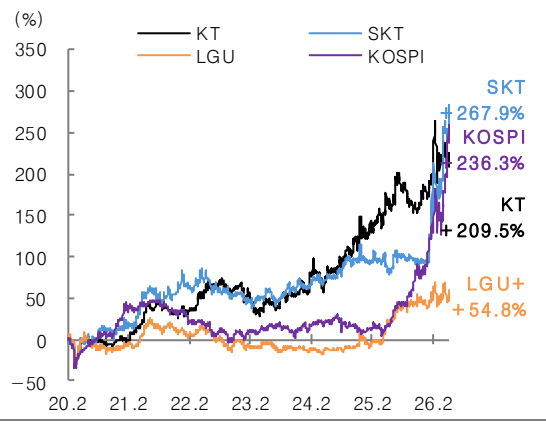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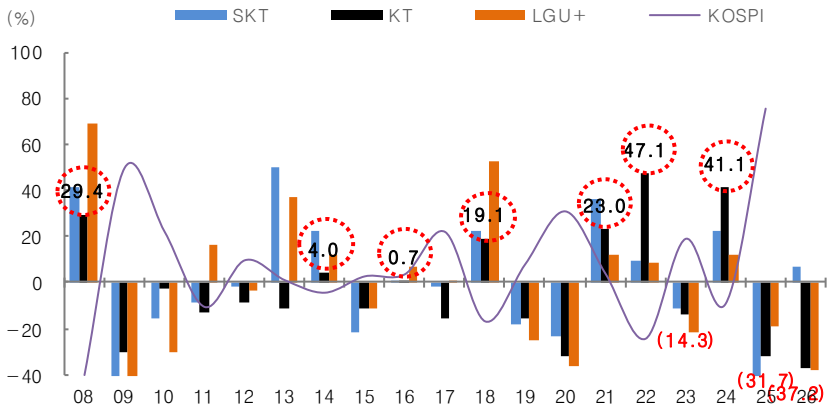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89.3%(+6.5%), KT +11.6%(-37.2%), LGU+ 10.1%(-38.1%)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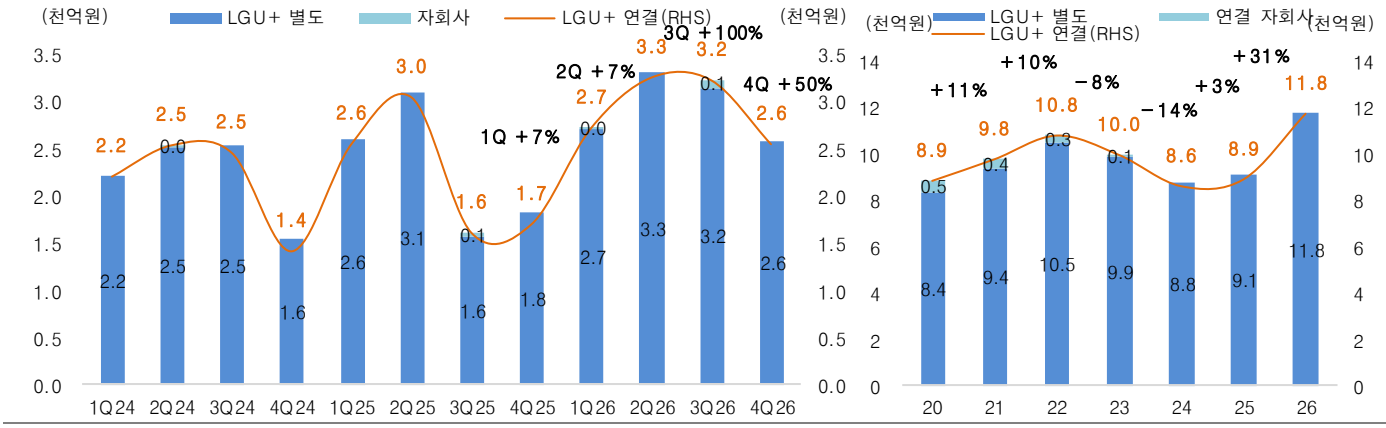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89.3	11.6	10.1	77.8	6.5	(37.2)	(38.1)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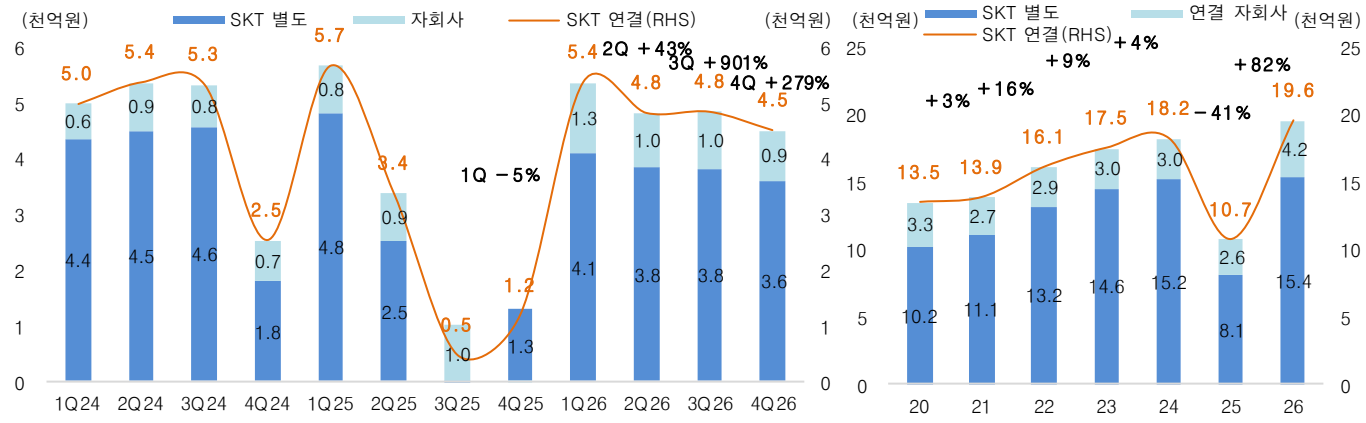
3. 1Q26 Review

LGU+ OP 1Q26 2.7천억원(+7% yoy), 26E 1.2조원(+31%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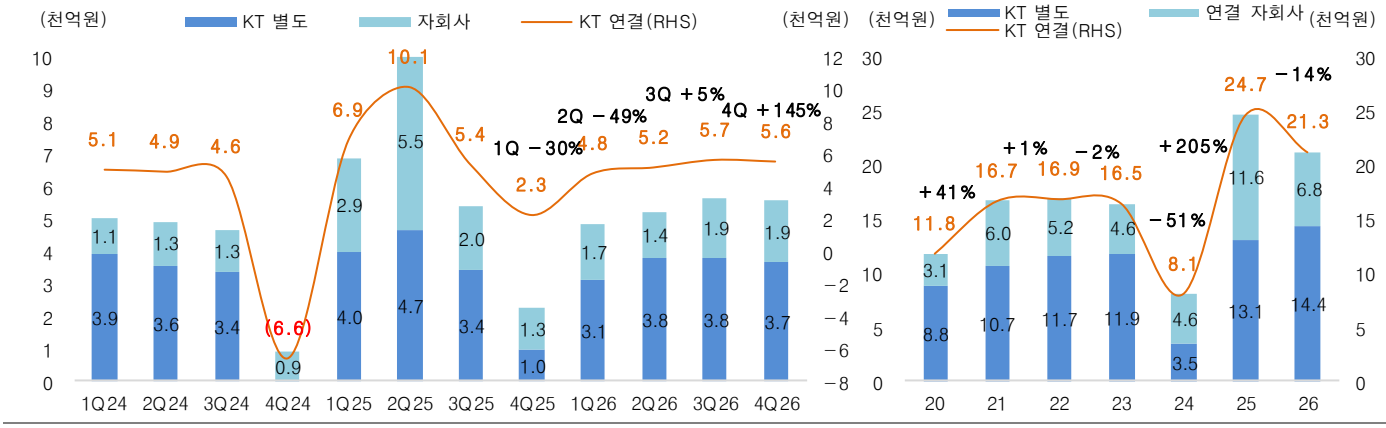
자료: LGU+,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T OP 1Q26 5.4천억원(-5% yoy), 26E 2조원(+82%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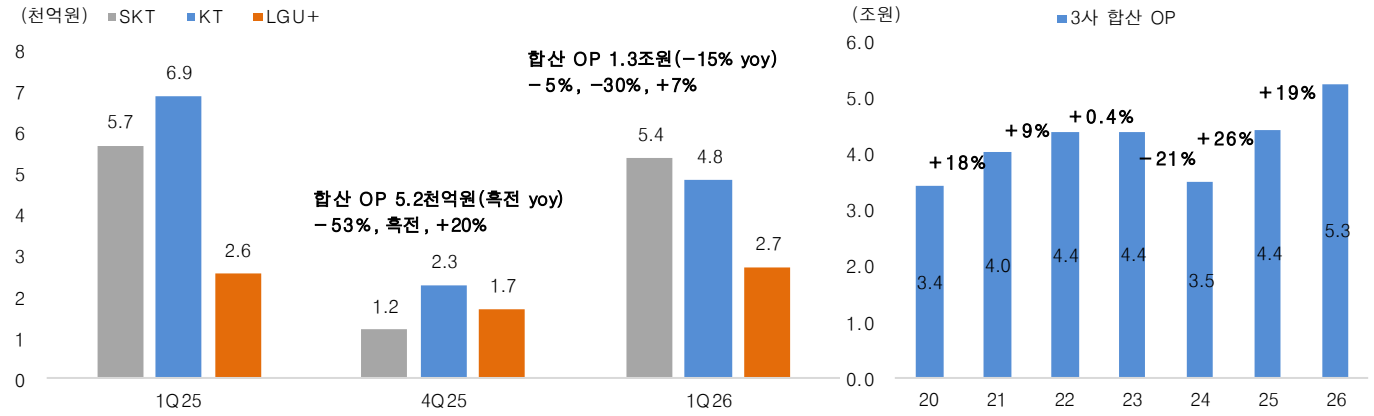
자료: S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T OP 1Q26 4.8천억원(-30% yoy), 26E 2.1조원(-14%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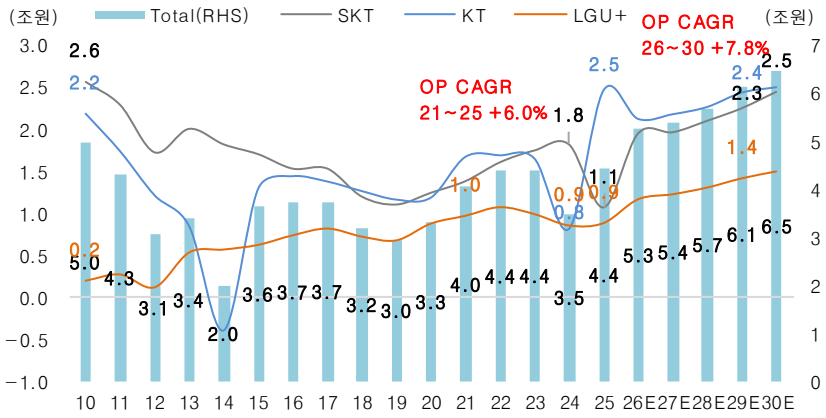
자료: 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사 합산 OP 1Q26 1.3조원(-15% yoy), 26E 5.3조원(+19%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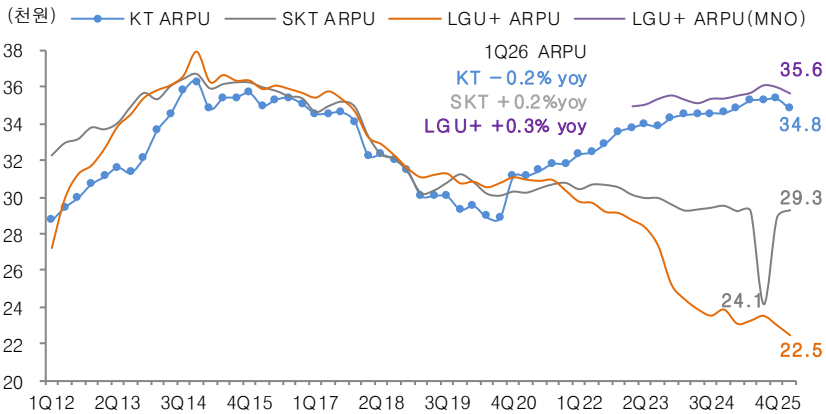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사 합산 OP 26E 5.3조원, 30E 6.5조원. 연평균 8% 증가 전망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Q26 무선 ARPU. LGU+ +0.3%, SKT +0.2%, K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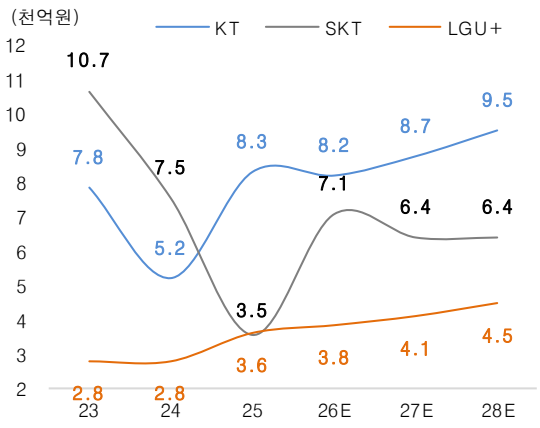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주간 코멘트

KT·도쿄일렉트론 직접 PPA, LGU+·MS AI 협력 확대, QoS 알뜰폰 영향, KT 사외이사 통제 강화, SKT 국방 AI	
KT KT·도쿄일렉트론 직접 PPA	1. KT가 도쿄일렉트론코리아와 재생에너지 직접PPA 협약 체결하며 에너지 사업자 전환 이후 본격적 B2B 전력 공급 확대. 통신사에서 탄소중립·전력 플랫폼 사업자로 외연 확장 2. 핵심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접PPA 구조. KT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자격을 활용해 반도체 장비 기업 주요 거점에 장기 전력 공급자로 참여하며 에너지 중개 시장 실전 진입 3. 공급 규모는 초기 15MW에서 향후 50MW까지 확대 예정. 화성·용인·성남 등 반도체 핵심 거점 전력 수요 상당 부분을 친환경 전환 대상으로 설정하며 RE100 대응력 강화 4.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고객사 탄소 감축 요구 대응과 공급망 ESG 경쟁력 확보 의미.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글로벌 고객사의 Scope3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조달 전략 중요성 확대 5. KT는 탄소중립플랫폼과 전력 모니터링 역량을 결합해 단순 전력 판매보다 관리형 에너지 서비스 사업 모델 구축 시도. 통신 인프라 기업이 데이터·전력·ESG를 결합한 신사업 축 확보 목표
긍정적	▪ 통신은 선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해서 적용 중. 데이터센터 확장 등 에너지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LGU+ LGU+·MS AI 협력 확대	1. 홍범식 LGU+ 대표가 MS CEO 서밋 참석을 통해 빌 게이츠·사티아 나델라 등 핵심 리더와 회동 예정. 국내 통신·ICT 서비스 기업 중 유일한 초청, 글로벌 AI·클라우드 전략 네트워크 진입 2. MS CEO 서밋은 생성형 AI·애저·코파일럿·AIDC 등 차세대 기업 기술 전략 논의 중심 비공개 플랫폼. 단순 행사 참석보다 LGU+의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확장 가능성 점검 무대 성격 3. LGU+는 통신망·기업 네트워크·AICC·보이스AI·AX 컨설팅 기반 B2B 강화 중. MS는 클라우드·생성형 AI 플랫폼 강자로 양사 결합 시 국내 기업 AX 전환 시장에서 상호보완성 확대 가능 4. 실질 협력 후보는 코파일럿 기반 업무 혁신, 기업 클라우드 전환, AI 상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이미 내부 코파일럿 적용 사례 존재해 기술 검토 단계를 넘어 사업 확장 단계 진입 가능성 5. 핵심 변수는 협력이 기술 도입 수준에 머무를지 공동 사업화로 확장될지 여부. 성공 시 LGU+는 B2B AX 경쟁력 강화, MS는 한국 엔터프라이즈·통신 시장 침투력 확대라는 구조적 이해관계 형성
긍정적	▪ AI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누구도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들 간의 협업이 필수
산업 QoS 알뜰폰 영향	1. 정부가 통신 3사 2만~3만원대 LTE·5G 저가요금제에 최소 400Kbps 데이터 안심옵션 의무화를 추진하며 상반기 출시 가시화. 통신비 절감 명분 아래 기본통신권 확대와 저가요금제 체감 가치 상향 예상되지만 사업자간 정책 수혜 불균형 우려 2. 안심옵션은 기존 데이터 소진 후 사실상 단절되던 저가 구간을 쥔 무제한 구조로 전환하는 변화. 웹서핑·음악 수준이지만 저소득층·서브회선 이용자에겐 가격 대비 효용 상승 효과 뚜렷 3. 과기정통부는 연간 3,221억원 절감 효과를 제시했지만 정책 수혜가 MNO 중심이라는 점이 변수. 알뜰폰은 동일 QoS 적용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 구조로 가격 우위 약화 우려 4. 알뜰폰 업계는 기존 '더 저렴한 동일 체급'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 주목. 통신 3사가 저가 구간 상품성까지 강화하면 MVNO의 핵심 차별점이 축소되며 가입자 순감 압력 심화 5. 문제는 알뜰폰 QoS 확대 시 도매대가 부담 구조. 망 임대 비용이 유지된 채 QoS만 의무화될 경우 중소 사업자 수익성 악화와 시장 재편 가능성까지 동반될 수 있는 구조적 압박 6. 결국 이번 정책은 소비자 후생 확대와 동시에 MNO·MVNO 경쟁 질서 재조정 성격 병존. 알뜰폰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QoS 확대보다 도매대가 인하, 정책 형평성, 시장 구조 보완이 핵심 변수
긍정적	▪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요금인하가 아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KT KT 사외이사 통제 강화	1. KT 이사회가 사외이사 윤리강령과 위임계약서 개정을 통해 독립성·윤리성 강화에 착수. 노동조합의 인사·투자 개입 의혹 제기 이후 제도 기반 통제 체계 정비 국면 2. 핵심은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 금지 조항 명문화. 기존 선언적 독립성 원칙보다 구체적 행위 제한 기준을 설정하며 경영 간섭 논란 제도적 차단 3. 반기별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도입도 특징. 외부 감사보다 자기 점검 중심이지만 정기적 기록 체계 마련으로 향후 책임 추적성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압박 강화 4. 제재 수단도 경고·위원회 활동 제한·의결권 미행사 권고·사직 권고까지 단계화. 사외이사 권한은 유지하되 윤리 위반 시 실질적 제어 장치를 확보해 이사회 내부 규율 체계 보완 5. 배경에는 특정 사외이사의 보직 인사 및 해외 투자 개입 의혹 존재. KT 특성상 사외이사 권한이 큰 만큼 외풍 방지 및 내부 권한 남용 통제 필요성 확대
긍정적	▪ KT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사회 운영 방안 도입. 꾸준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중
SKT SKT 국방 AI	1. SKT가 국방부·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국방 분야에 처음 적용하며 민간 초거대 AI를 국가 안보 체계로 확장. 국가 프로젝트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전 행정·안보 활용 검증 단계로 진입 2. 핵심은 SKT의 519B급 A.X K1·K2 계열 모델을 국방 환경에 맞게 경량화·특화하는 방향. 공개 국방 데이터와 국가 GPU 자원을 결합해 보안성과 처리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소버린 AI 실증 체계 구축 3. 국방 분야는 해외 빅테크 AI 활용이 제한적인 대표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략성 확대. 데이터 국외 이전, 외부 클라우드 의존, 기밀 통제 문제를 줄이며 국내 기술 기반 통제형 AI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인 4. 이번 협약은 단순 기술 협력보다 국가 AI 산업정책의 수요처 확대 의미. 과기정통부 독자 AI 프로젝트가 공공·안보 시장이라는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향후 금융·의료·제조 등 보안 민감 산업 확산 가능성 증대 5. SKT 는 LLM 개발, GPUaaS, 산업형 AX를 묶는 B2B 전략 고도화.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프라형 AI 사업자로 포지셔닝하며 산업 AI·공공 AI 양축 확장 구조 강화 6. 성패 변수는 국방 데이터 품질, 경량화 성능, 실제 행정 효율 개선 수준. 실증 성과가 확인될 경우 K-AI 생태계는 기술 자립 논리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 내 구조적 채택 단계로 진입 가능
긍정적	▪ SKT가 추구하는 AI 방향은 Full Stack AI. 인프라와 미들웨어 및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 다만, 각 영역 내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고, 모든 영역을 다 잘하겠다는 전략은 아님 ▪ LLM의 경우는 글로벌 LLM의 대체를 위한 개발이라기 보다는 소버린 AI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응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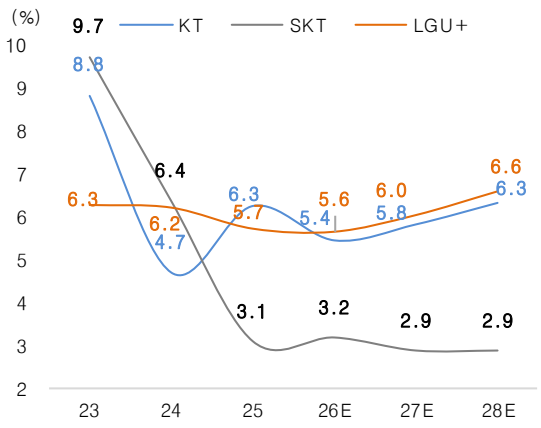
5.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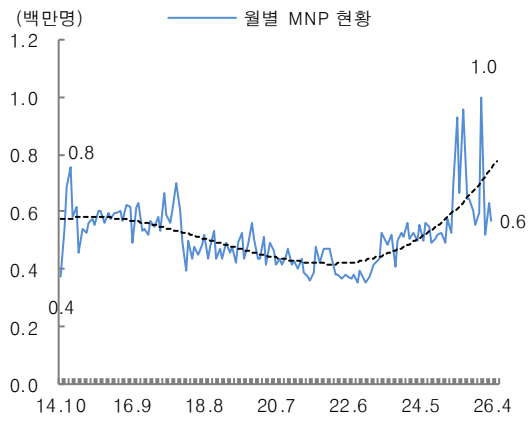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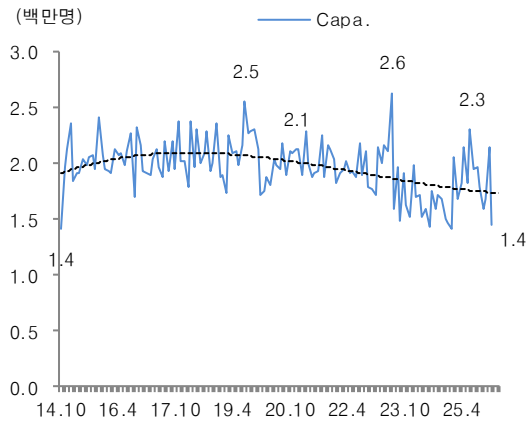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4월) 567천명, -66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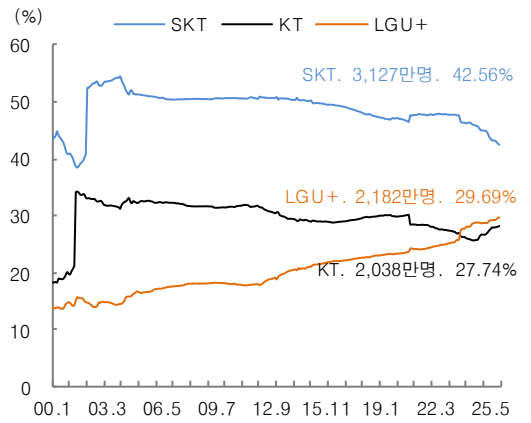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45만명(26.2월). 24년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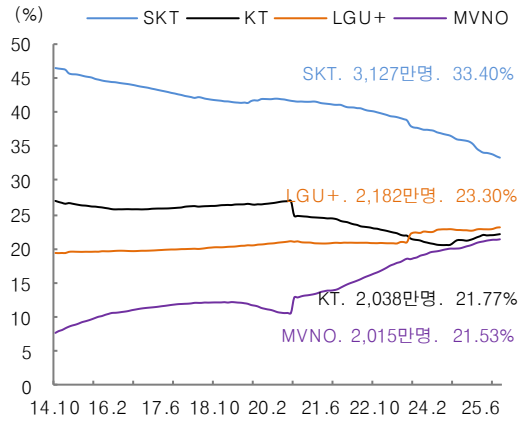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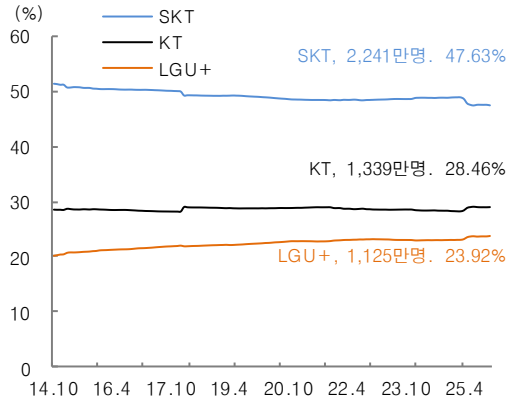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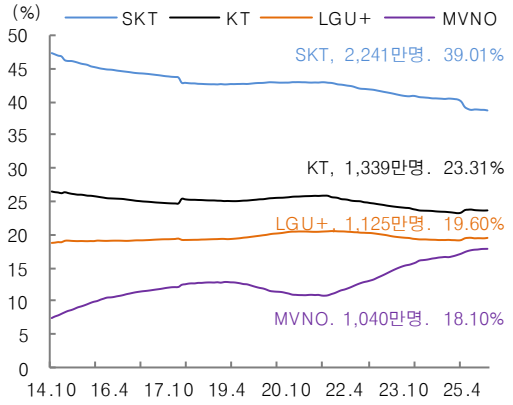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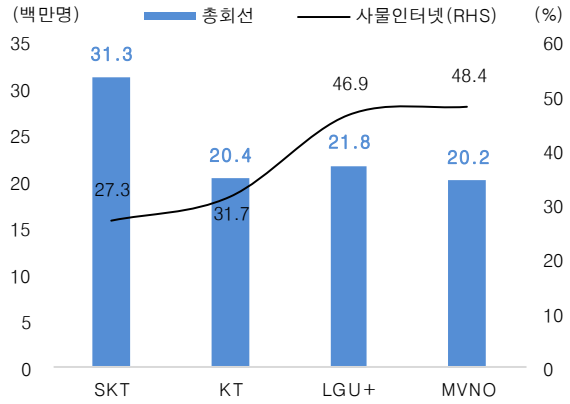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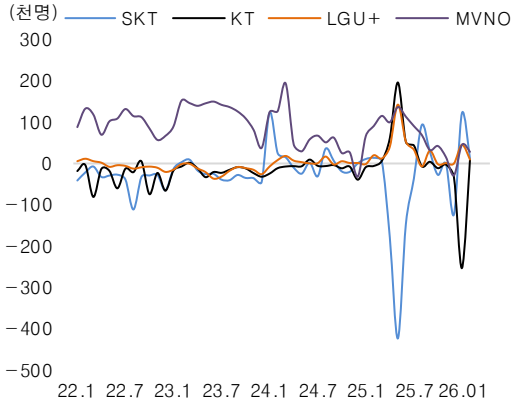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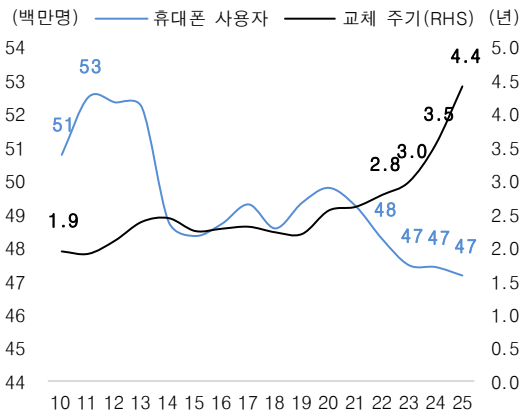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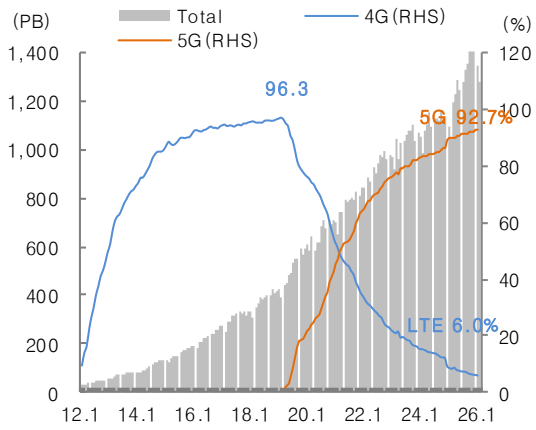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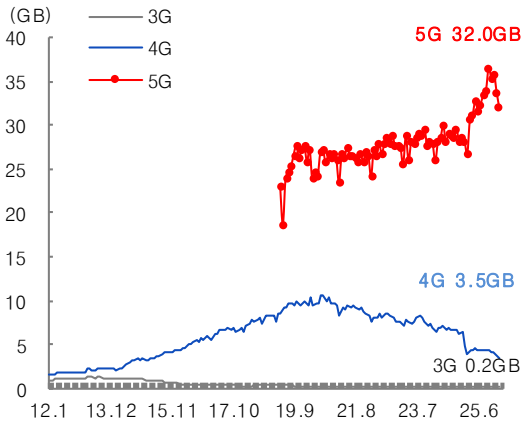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7%(26.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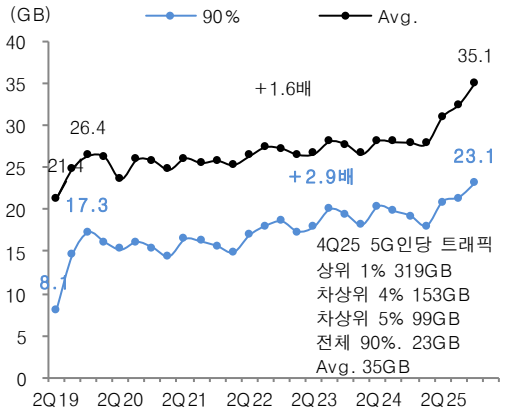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2.0GB(26.2월), -1.7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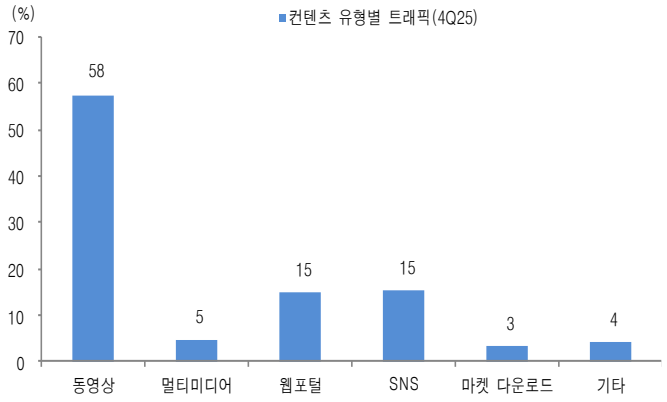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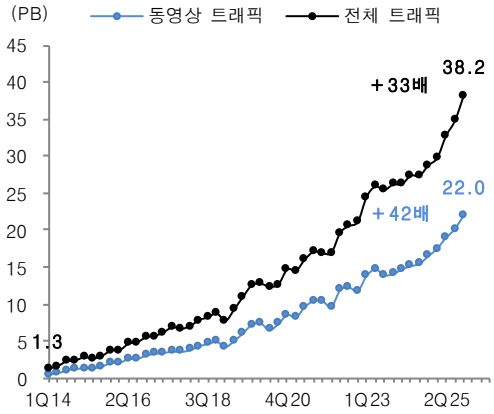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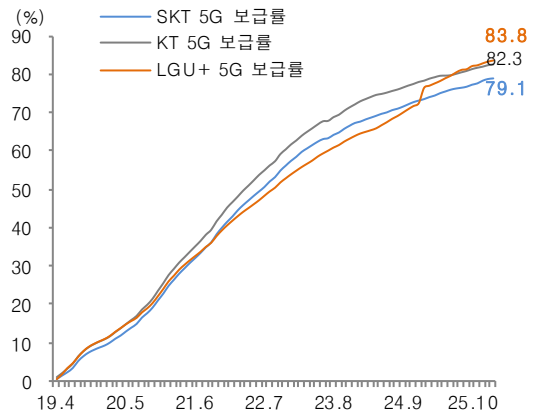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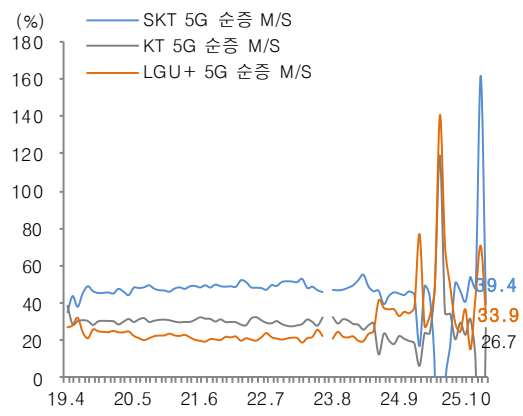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2%(26.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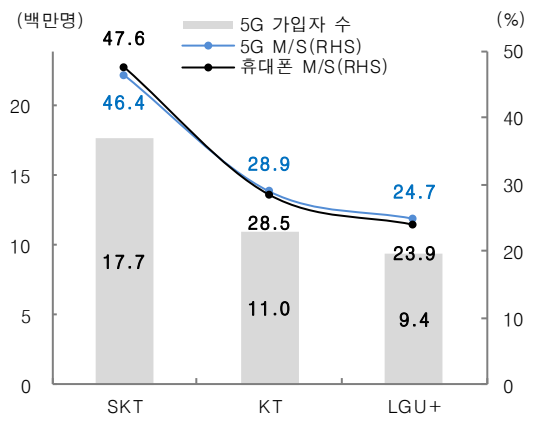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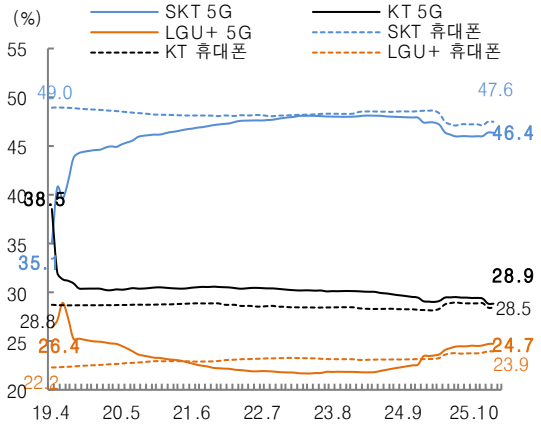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